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9호 【무게 제25077호】 주제104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완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김영호 내각사무장, 리종국 기계공업상, 김용광 금속공업상, 강종관 룩해운상, 장혁 철도상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에서 로력적성과를 이룩

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새 승리를 떨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져올리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의 불타는 마음으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 같이 떨쳐나 백두산청년강국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로력적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첨출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오직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정의 자욱을 아로새겨온 조선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우리 당을 경제강국건설의 빛나는 성과로 만들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과 격려를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을 높이 펼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김정은명도자를 닮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높은 흥연성과로 맞이한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축하하시였으며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 도이쉴란드만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또한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도자께서는 주체문화예술발전계획에 이바지해가는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천민의 심장을 혁명 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데서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세네갈신문 <더 보블레르>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조선로동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총정다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일본의 통신과 나이지리아, 민주통고, 도이쉴란드의 인터넷홈페이지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한편 민주통고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신 소식을, 만민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만마>는 새로 건조한 종합방송사신 <무지개>호를 돌아보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모임 진행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를 승리와 영광의 길로 수놓아가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치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고있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모임이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배려하여주시는 당 및 국가표창과 군사칭호수여하는 모임이 2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한동급이상의 높은 군사칭호가 수여되었다. 공훈국가합창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 장룡식에게 육군중장의 군사칭호가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한동급이상의 높은 군사칭호가 수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부되고 판

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에 가리라>에 김정일상 상장과 김정은상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박성남, 함혁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표창장을 김은일이 수여받았다.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 지휘성원, 창작가, 예술인, 성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와 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부된 다음 인민예술가칭호가 현은철, 장길호, 민병철에게, 인민배우칭호가 문일환, 리준에게, 공훈예술가칭호가 리경덕에게, 공훈배우칭호가 지수원, 정광제, 김유경에게, 국기훈장 제1급이 7명에게, 로백훈장이 23명에게, 국기훈장 제2급이 6명에게, 국기훈장 제3급이 11명에게 수여되었다. 모임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예술창작창조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오솔은 그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혁명군가의 음악포성, 노래포성으로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전체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최고사령부의 제일나팔수, 사상전선의 제1선전투원으로서의 사랑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만을 걸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형상할으로써 주체의 붉은 당기를 뜻으로 삼고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펼쳐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명세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